

청소년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과의 관계연구

육 혜 련

(대전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경험이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이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청소년쉼터 중 단기·중장기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4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 수준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는 총 가출기간,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출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현 쉼터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았다. 또한 우울·불안은 성별, 연령,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현 쉼터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높았다. 셋째, 사회적 배제(전체)가 높아질수록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별로는 경제영역, 사회제도영역, 노동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 할수록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문제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회적 배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을 극복하고 건강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천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소년쉼터에서의 입소기간에 대해 개별적, 전문적, 통합적인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요용어: 사회적 배제, 우울·불안, 가출청소년, 청소년쉼터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인 '통합 연구방법을 적용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심리 사회적 부적응과의 관계연구: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투고일 2013.10.23 ■ 수정일: 2013.12.12 ■ 게재확정일: 2013.12.27

I. 서론

최근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체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부모의 이혼, 실직, 빈곤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는 위기 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진혜민 외, 2011). 청소년 시기의 부적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청소년 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가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저 연령화, 반복화, 장기화 현상의 특징을 보이기도 하며(정경은, 2008), 비행,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으로도 이어져(문재우, 2012) 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가출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청소년들에게 가족과의 갈등으로부터 해방, 새로운 경험에 대한 모험심과 소속감을 주기도 한다(Higgitt & Ristock, 2005).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성인가출이나 노숙인보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길거리 생활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Whitbeck et al., 2007). 또한, 가출과 함께 교육의 단절, 약물남용, 절도, 성매매 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홍봉선·남미애, 2007), 각종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정신적·심리적인 불안정을 동반한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최근 사람들의 정신적·신체적 적응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란 '그 자신이 통제를 넘어선 이유로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의 참여를 희망하지만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Burchardt & Piachaud, 2000)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기존 사회적 배제의 접근방식에서 강조되어 오던 경제적 궁핍 뿐 아니라 취약집단이 사회적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경제·심리·문화적인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기회가 차단되고 이로 인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말한다(박병현·최선미, 2001).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인기로 이행하는 유예기간에 해당되며,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로 규정(길임주, 2008)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역시 생존을 위한 기본 보호와 복지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 방식이나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 추구하고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며

로 사회적 배제의 대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사회적 약자인 반면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강하여 사회의 불이익은 물론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받는 집단이기도 하다.

특히나 청소년 집단 중 소외집단이자 취약집단이라 할 수 있는 가출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물질적·심리적인 취약점은 사회의 주변화가 될 가능성과 사회적 배제를 심하게 겪을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어린 시절의 사회적 배제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소득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노출의 가능성을 높이며(Aya, 2010), 중년기 노동시장과 복지혜택에서도 높은 위험성이 있음을 시사한다(Backman & Nilsson, 2011). 이러한 점들은 청소년시기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해서 주목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회 성인집단 중 소외계층이나 소수계층(유현숙·곽현근, 2007; 정미숙, 2007; 강현정, 2009; 이정은·조미형, 2009; 김광웅, 2010; 신희정, 2010; 권신영, 2011; 노병일·손정환, 2011; 김정현, 2012)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사회적 배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역시 성인 중심의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사회적 배제는 성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자아존중감, 우울, 임파워먼트와 같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선행연구들(배지연 외, 2006; 강현정, 2009; 김태준, 2010; 권신영, 2011; 노병일 외, 2011)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는 국내에 몇 편(김준영, 2008; 김현주·김준영, 2008; 강영배, 2009; 노혁, 2009; 이중섭·이용교, 2009; 김현주·김준영, 2010)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내용 역시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관계망 등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 및 사회적 배제의 실태 정도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청소년 집단 중에서도 경제적 빈곤이나 열악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더욱이 청소년시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 있어 무척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찾아보기가 어렵다.

사회가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점은 그들의 사회관계망의 단절과 위축은 물론 취약계층으로의 가속화를 가져온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 전·후의 사회적 배제 즉, 학업 부적응, 가정의

빈곤, 가족의 해체, 교육에서의 박탈 등과 같은 경험은 성인기까지 지속화시켜 결국 심리적·사회적 문제까지 극복해야 하는 고위험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한다(김수정, 2008).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경험이 청소년들의 미래와 관련하여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빈약한 이유는 일반 청소년은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대상으로 사회 투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만, 가출청소년들은 가출을 하였다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들의 교육, 생활환경 등 국가의 관심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인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사회적 배제는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가출청소년처럼 사회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알아본다는 것은 가출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반 청소년의 부모 및 사회적 관계망 등의 제한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 경험이 그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중 특히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가출청소년들의 적응은 물론 이에 따라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결국 청소년 권리의 보장과 함께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배제의 개념

사회적 배제 개념의 등장은 1960년대 프랑스의 피에르 마세(Pierre Masse)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막스베버(Max Weber)에 의해 학문적으로 연구되어지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은 국내·외 다양한 학자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Room(1995)은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이나 지역사회가 구현하는 권리와 의무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Power(2000)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소속된 모든 집단과 개인들이 사회에서 기대하는 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90년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연구되어지기 시작한 사회적 배제는 국내의 다양한 학자에 의해 정의되어지고 있다. 우선 강신욱 외(2005)는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자원의 박탈 또는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배제된 상태’로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개인이나 집단이 소비에 필요한 자원 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 혹은 그 영역에서 권리의 박탈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윤진호 외(2004)는 사회적 배제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보장권, 경제적 복지권, 사회적 참여권 등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 등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또한 문진영(2004)과 김안나(2007) 역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을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기회의 박탈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신명호 외(2004)는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당해 사회, 경제, 정치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 배제를 연구하는 많은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회적 배제의 상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문진영, 2004; Room, 2005; Richardson & Grand, 2002).

이처럼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사회적 배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신의 삶에 있어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재화, 사회적 보장과 사회적 서비스의 부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단과 고립의 결과로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가출청소년과 사회적 배제

경찰청(2012)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초등학교 시기까지의 저 연령화, 장기화, 상습화의 특징을 보이며(김향초, 2009; 백혜정·박은령, 2009),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청소년 가출은 극소수의 문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충격적인 이슈가 아니다(정경은·김신영, 2012). 흔히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사람을 잘 속이는 아이’, ‘공격적이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아이’, ‘정직하지 못한 아이’, ‘친구들과 놀고 싶어 스스로 가정을 박차고 나갔으므로 고생 좀

해야 하는 아이' 등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가출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은 어떠한지? 그들이 가출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가출 기간동안 경험했던 어려움과 필요로 했던 도움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며, 단지 그들의 생활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측을 할 뿐이다.

가출청소년들은 가출 이후에도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가출청소년들의 생활은 가출 전부터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2010; 2012)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대부분은 가출 전부터 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가정폭력, 학대, 경제적 빈곤, 가족해체 등과 같은 가족 구조의 결손으로 인한 해체된 가정에서 생활하였으며, 이로 인한 1차적 사회 안전망 붕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의 경험에서 파생되는 무력감과 두려움은 또 다른 심리적 배제의 경험으로 이어져 다른 청소년보다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인다(임운식·최현식, 2010). 이렇게 형성된 부정적인 자아는 결국 교우,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김연미, 2010),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이탈되어 가출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정경은 외, 2012)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출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는 가출 후에도 지속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을 높인다. 대다수의 가출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는 주거, 경제적 어려움, 교육, 건강, 심리, 비행문제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돈과 주거에 대한 문제를 꼽고 있는데 이는 가출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이에 대한 욕구는 절실해진다(홍봉선 외, 2007). 실제로 가출청소년들이 가출 후 당면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점은 의식주 해결 문제였으며(여성가족부, 2012), 이는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출청소년들은 자신의 시급한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과 가출로 인한 일시적·영구적인 학업포기 및 학업중단 등의 교육의 박탈은 안정적인 일자리대신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의 일일직이나 임시직 등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여자 청소년인 경우 단란주점, 티켓다방, 전화방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나 청소년 고용이 불법인 업소에서까지 일을 하고 있어 가출 청소년들이 위험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2). 또한 청소년

년들을 고용하고 있는 일부 고용 업주는 불이익을 당해도 호소할 가족이 없다는 가출청소년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일을 시킨 후 보수를 주지 않거나, 폭언이나 인격모독, 구타나 폭행, 성희롱 성폭력까지 가행하고 있어 가출 후 청소년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는 더 큰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가출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가출 전·후 가족, 학교,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지역적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구조 속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배제는 어느 한 분야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아닌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의 각 요인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가출청소년이 받게 되는 사회적 배제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생활인으로서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저해시키며 무기력을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무기력은 인간관계 기술의 발달을 제한하고 사회적 역할 수행에서의 효과성을 감소시킨다.

3.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과 불안

청소년의 우울·불안은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마음의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 중 우울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자 청소년 복지에서 가장 널리 연구되어 질 만큼(Fitzpatrick et al.,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우울은 가출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신적 장애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한상철, 2010), 이는 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이석형, 2007; 이해은·최정아, 2008), 우울 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심리사회적 적응력이 낮아진다는 공통적인 결과도 있다(박현선·김유경, 1997; 김영란, 2006).

가출청소년들은 대다수 가출 전 이미 부모의 폭력과 학대, 무관심으로 인한 욕구불만이 있으며, 빈곤의 열악함에 노출되어 청소년들의 우울과 불안을 더욱더 증가시킨다(하은혜 외, 2003). 이러한 우울과 불안 속에서 가출을 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원가족과 분리되어 거리 또는 타 시설에 맡겨져 생활하는 상태이므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환경의 청소년들보다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우울한 정서를 동반한다. 또한 가출의 원인이 무엇이든 가출 이후의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 즉, 외로움, 의식주 문제 해결, 심리적 불안감,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노출 문제, 인권침해, 노동시장

의 착취 등을 현실로 직면하게 되면서(Martinez, 2006), 지속적인 우울과 불안감은 증폭된다(한상철·이수연, 2003). 더 심각한 것은 가출로 인해 이들이 보이는 행동문제는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성인이 된 이후의 반사회적 행동우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Leathers, 2000).

이처럼 가출청소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사회적 자원으로 인해 가출 전·후 사회적 배제를 크게 겪기 때문에 정신건강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 증상은 일시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취급될 수 있고, 성인과는 다른 표현방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는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최인숙, 2012). 그러나 가출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은 약물중독이나 충동적이고 자기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가출청소년의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한다(최인숙, 2012).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되어진 바가 없으며, 특히 가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출청소년들의 가정이 대다수 빈곤가정이라는 기존 선행연구들(남미애 외, 2010; 남미애 외, 2012)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선행연구의 결과들(오경자 외, 2005; 김선하·김춘경, 2006; 조성희·박소영, 2010; 박병금, 2009)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보면, 경제적 수준의 어려움을 포함한 사회적 배제 경험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가출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비록 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성인의 사회적 배제를 연구한 선행연구들(배지연 외, 2006; 강현정, 2009; 김태준, 2010; 노병일 외, 2011; 박혜진, 2011 윤민재, 2013)을 통해 살펴보면 사회적 배제는 성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의 취약집단보다 더 열악한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는 우울·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이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전반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청소년쉼터에서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이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에 있어서는 조사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단기 및 중장기 쉼터의 14세 이상 19세 미만 가출청소년들 중 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설문지 다수의 항목에 대한 응답이 미기재되었거나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73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시기

본 연구는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의 협조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 문항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이해력 및 난이도에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 후 2012년 9월 4일부터 17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쉼터 지도교사 중 오랜 시간 근무를 하였거나,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교사의 지도로 이루어졌으며, 직원과 분리된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측정도구

가. 사회적 배제

본 연구의 목적인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해 윤성호(2012)가 개발한 한국형 사회 배제성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소비 및 자산, 교육, 건강, 노동, 사회제도, 지역사회환경, 지역사회시설, 사회적 관계, 사회참여, 자치단체영역 총 10개 영역 5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는 성인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던 척도지만 척도의 문항이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가출 후 가정의 돌봄 없이 성인과 유사한 삶을 살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에게는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원척도

를 가출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복지를 전공한 교수, 청소년기관 전문가의 자문, 사회적 배제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조사 대상에 맞는 영역과 문항을 선별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조사대상자의 사전 검사를 통해 문항의 이해력과 난이도 등을 확인하는 최종 과정을 거쳐 최종 경제, 교육, 사회관계, 사회제도, 사회참여, 지역사회환경, 노동영역의 총 7개 영역 4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배제의 7개 영역 47문항은 가출청소년들의 가지고 있는 열악한 사회적 지지기반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참여의 기회, 대인관계의 차단, 지역의 낙후로 인한 영향, 노동에서의 진입금지 등의 차별 정도를 알아보는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출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가 높다고 하겠다. 본 척도의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경제영역 Cronbach's α =.928, 교육영역 Cronbach's α =.874, 사회관계영역 Cronbach's α =.932, 사회제도영역 Cronbach's α =.925, 사회참여영역 Cronbach's α =.824, 지역사회환경영역 Cronbach's α =.930, 노동영역의 취업자인 경우 Cronbach's α =.878, 미취업자인 경우 Cronbach's α =.916으로 모든 영역별 신뢰도는 높았다.

나. 우울불안

본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YSR(Youth Self Report)을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1991)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K-YSR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불안 질문지는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54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사용된 모든 측정도

구는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 및 사회적 배제(전체)와 우울·불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 및 전체가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쉼터유형, 가정경제 수준, 총 가출횟수, 총 가출기간, 현 쉼터 이용기간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서 '남자 청소년'은 230명(48.6%)이고, '여자 청소년'은 243명(51.4%)으로 '여자 청소년'이 다소 높았다. 연령은 '14세 이상-16세 이하'가 161명(34.0%)이었고, '17세 이상 19세 이하'는 312명(66.0%)으로 고등학생 시기의 청소년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쉼터유형별로는 '단기쉼터'가 341명(72.1%)이었고, '중장기쉼터'는 132명(27.9%)이었다. '단기쉼터'의 청소년이 월등히 높게 조사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고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단기 및 중장기 청소년쉼터 개소수의 차이도 있지만, 당초 대상자 표집 당시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쉼터의 성격상 청소년 입소율이 단기쉼터 청소년 입소율 보다 적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하에 단기 쉼터의 청소년을 더 많이 조사하고자 했던 의도적인 표집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정경제 수준을 살펴보면 '중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60명(33.8%) 이었고, 그중 자신의 가정경제가 '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4명이었다. 또한 '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13명(66.2%)으로 여기에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가출청소년들은 가출 전부터 빈곤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가출의 직접적인 요인인지 알 수 없으나 간접적인 영향 요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총 가출횟수를 살펴보면 '2회 이상~5회 미만'이 166명(3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10회 이상' 128명(27.1%), '5회 이상~10회 미만' 112명(23.7%), '1회' 67명(14.2%) 순이었다. 총 가출기간에 대한 응답은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71명(36.2%)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1개월 미만' 113명(23.9%), '6개월 이상~1년 미만' 95명(20.1%), 1년 이상 94명(19.9%)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6개월 이상'의 가출청소년을 장기가출자로 보았을 때, 조사대상자의 약 40%는 장기가출자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쉼터의 이용기간은 '1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226명(47.8%)으로 가장 높았고, '1개월 미만' 113명(23.9%), '6개월 이상~1년 미만' 61명(12.9%), '1년 이상' 51명(10.8%)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출청소년 중에는 가출과 동시에 청소년쉼터의 입소 생활을 하기 보다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쉼터로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
성별	남	230	48.6
	여	243	51.4
연령	14세 이상~16세 이하	161	34.0
	17세 이상~19세 이하	312	66.0
쉼터유형	단기쉼터	341	72.1
	중장기쉼터	132	27.9
가정경제 수준	중 이상*	160	33.8
	하**	313	66.2
총 가출 횟수	1회	67	14.2
	2회 이상~5회 미만	166	35.1
	5회 이상~10회 미만	112	23.7
	10회 이상	128	27.1
총 가출기간	1개월 미만	113	23.9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71	36.2
	6개월 이상~1년 미만	95	20.1
	1년 이상	94	19.9

변인	구분	N	%
현 쉼터 이용기간	1개월 미만	135	28.5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226	47.8
	6개월 이상~1년 미만	61	12.9
	1년 이상	51	10.8
	전체	473	100

* '중이상 집단 중 '상' 이라는 응답자는 14명이었음.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됨.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사회적 배제 수준은 4점 만점에서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성별, 연령, 쉼터유형, 가정경제 수준, 총 가출횟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또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미비한 상황에서 동일한 대상과의 비교는 어려웠지만 성인의 사회적 배제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최재성 외, 2009; 노병일 외, 2011; 김창기·이진성, 2013)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권신영, 2011; 전병주, 2012)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척도와 동일한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수준을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의 검증이라 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은 쉼터의 보호로 인해 어느 정도 안정화 상태라고 판단되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가출청소년으로 일반화 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일면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하겠다.

총 가출기간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844, p<.05$). 즉, 총 가출기간이 '1개월 미만'과 '1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가출청소년 보다 사회적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기간이 짧을수록 준비되지 않은 가출생활로 인해 사회적 배제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장기간

가출청소년들은 가출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또 다른 가출청소년들과 함께 가출팸을 만들어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하고, 가출생활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생활방식을 터득하기도 하면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둔감해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479, p<.001$). 즉, 현재 쉼터의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과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보다 사회적 배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차이

변인	구분	N	M	SD	t/F	Scheffe
성별	남	230	2.11	.564	1.329	
	여	243	2.04	.682		
연령	14~16세	161	1.99	.697	-1.891	
	17~19세	312	2.12	.586		
쉼터유형	단기쉼터	341	2.08	.635	.100	
	중장기쉼터	132	2.07	.613		
가정경제 수준	중 이상	160	2.08	.603	.061	
	하	313	2.07	.641		
총 가출횟수	1회	67	2.01	.681	.410	
	2회 이상~5회 미만	166	2.09	.617		
	5회 이상~10회 미만	112	2.11	.576		
	10회 이상	128	2.06	.661		
총 가출기간	1개월 미만 ^a	113	1.98	.689	2.844*	c>a,d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b	171	2.12	.597		
	6개월 이상~1년 미만 ^c	95	2.19	.623		
	1년 이상 ^d	94	1.98	.593		
현 쉼터 이용기간	1개월 미만 ^a	135	2.13	.577	6.479***	a,b>c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b	226	2.15	.596		
	6개월 이상~1년 미만 ^c	61	1.80	.732		
	1년 이상 ^d	51	1.93	.664		

* $p<.05$, ** $p<.01$, *** $p<.00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불안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불안의 수준은 3점 만점에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조사대상자의 우울·불안은 성별, 연령,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성별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우울·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41, p<.05$).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선행연구들(김은이·오경자, 2006; 최해경·김선숙, 2009; 조성희 외, 2010; 김형태 외, 2012)의 결과와 유사하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불안의 차이

변인	구분	N	M	SD	t/F	Scheffe
성별	남	230	1.62	.522	-2.541*	
	여	243	1.75	.624		
연령	14~16세	161	1.61	.618	-2.030*	
	17~19세	312	1.73	.557		
쉼터유형	단기쉼터	341	1.67	.570	-1.156	
	중장기쉼터	132	1.74	.605		
가정경제 수준	중 이상	160	1.66	.588	-.681	
	하	313	1.70	.577		
총 가출횟수	1회	67	1.65	.594	1.146	
	2회 이상~5회 미만	166	1.70	.577		
	5회 이상~10회 미만	112	1.76	.572		
	10회 이상	128	1.63	.584		
총 가출기간	1개월 미만	113	1.58	.547	1.901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71	1.70	.574		
	6개월 이상~1년 미만	95	1.75	.613		
	1년 이상	94	1.74	.589		
현 쉼터 이용기간	1개월 미만a	135	1.75	.549	4.084**	a,b>c
	1개월 이상~6개월 미만b	226	1.71	.592		
	6개월 이상~1년 미만c	61	1.45	.484		
	1년 이상d	51	1.73	.658		

* $p<.05$, ** $p<.01$, *** $p<.001$

연령에서는 '14~16세' 청소년보다 '17~19세' 청소년이 우울·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30, p<.05$).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하은혜 외, 2003; 오승환, 2006; 박나래·정익중, 2012; 문상식, 2013)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사회활동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는 '1개월 미만'과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쉼터 이용 청소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이용 청소년보다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084, p<.01$).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쉼터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가출청소년의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그들의 적응에 보호요인이나 완충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들(이현지, 2005; 조규필, 2005; 이용교·남미애, 2006; 김종삼, 2008; 정경은, 2008; 김형태·조순실, 2009; 문지윤·임정하, 2011; 강현아 외, 2012; 남미애 외, 2012)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쉼터의 안정적인 생활은 가출청소년들의 우울과 불안을 낮춰주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3. 주요 변수 간 관계 및 영향력

가.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과 우울불안과의 상관관계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 및 사회적 배제(전체)와 우울·불안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의 하위영역과 전체는 모두 우울·불안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과 우울·불안과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경제영역	교육영역	관계영역	제도영역	사회참여영역	지역사회환경	노동영역	사회적배제(전체)	우울불안
1	1								
2	.557***	1							
3	.497***	.704***	1						
4	.473***	.680***	.802***	1					
5	.483***	.656***	.713***	.736***	1				
6	.420***	.652***	.634***	.710***	.677***	1			
7	.469***	.518***	.486***	.513***	.493***	.541***	1		
8	.723***	.850***	.830***	.849***	.807***	.838***	.718***	1	
9	.447***	.416***	.423***	.436***	.385***	.399***	.414***	.523***	1

*p<.05, **p<.01, ***p<.001

나.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개의 모형으로 구성하였다(표 5). 이 경우에 VIF값을 통해서 본 연구의 회귀 모형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쉼터유형, 가정경제 수준, 총 가출 횟수, 총 가출기간, 현 쉼터 이용기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모형 2에서는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을 투입하였다. 우선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3.087, p<.01), 모형은 4.4%(R²=.04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 청소년일수록(β =.131, p<.01), 연령이 높아질수록(β =.134, p<.01)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을 추가한 모형이다.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6.857, p<.001), 모형은 34%(R²=.34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단계에 비해 29.6%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이다. 성별에서는 여자 청소년일수록(β =.179, p<.001), 총 가출기간이 길수록(β

=.118, $p<.01$), 경제영역($\beta=.251$, $p<.001$), 사회제도영역($\beta=.199$, $p<.01$), 노동영역($\beta=.170$, $p<.001$)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수록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형 1				모형 2			
	B	β	t	VIF	B	β	t	VIF
성별 ¹⁾	.152	.131	2.828**	1.039	.208	.179	4.528***	1.085
연령	.054	.134	2.887**	1.041	.021	.053	1.333	1.085
쉼터유형 ²⁾	.012	.010	.186	1.281	-.007	-.006	-.130	1.303
가정경제 수준 ³⁾	.027	.022	.478	1.023	.029	.023	.603	1.046
총 가출횟수	-.003	-.045	-.981	1.025	-.003	-.048	-1.242	1.047
총 가출기간	.000	.093	1.804	1.292	.000	.118	2.706**	1.325
쉼터이용기간	.000	-.048	-1.055	1.018	1.448	.005	.117	1.055
경제영역					.166	.251	5.116***	1.667
교육영역					.017	.024	.389	2.671
사회관계영역					.026	.044	.621	3.461
사회제도영역					.128	.199	2.643**	3.929
사회참여영역					-.026	-.043	-.675	2.804
지역사회환경영역					.030	.044	.723	2.620
노동영역					.021	.170	3.492***	1.646
R ²	.044				.340			
adjusted R ²	.030				.320			
R ² 변화량	.044				.296			
F	3.087**				16.857***			

* $p<.05$, ** $p<.01$, *** $p<.001$

주: 더미변수 1)성별: 남자=0, 여자=1 / 2)쉼터유형: 단기=0, 증장기=1 / 3)가정경제 수준: 중 이상=0, 하=1

다. 사회적 배제(전체)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전체)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개의 모형으로 구성하였다(표 6). 이 경우에 VIF값을 통해서 본 연구의 회귀 모형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배제(전체)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1단계에서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며($F=3.087$, $p<.01$), 모형은 4.4%($R^2=.04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 청소년 일수록($\beta=.131$, $p<.01$), 연령이 높아질수록($\beta=.134$, $p<.01$)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전체)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형 1				모형 2			
	B	β	t	VIF	B	β	t	VIF
성별 ¹⁾	.152	.131	2.828**	1.039	.180	.155	3.956***	1.042
연령	.054	.134	2.887**	1.041	.026	.063	1.593	1.060
쉼터유형 ²⁾	.012	.010	.186	1.281	.004	.003	.064	1.282
가정경제 수준 ³⁾	.027	.022	.478	1.023	.030	.025	.637	1.023
총 가출횟수	-.003	-.045	-.981	1.025	-.002	-.041	-1.044	1.025
총 가출기간	.000	.093	1.804	1.292	.000	.110	2.525*	1.293
쉼터이용기간	.000	-.048	-1.055	1.018	7.235	.023	.583	1.036
사회적 배제(전체)					.490	.531	13.564***	1.037
R ²	.044				.316			
adjusted R ²	.030				.304			
R ² 변화량	.044				.271			
F	3.087**				26.762***			

* $p<.05$, ** $p<.01$, *** $p<.001$

주: 더미변수 1)성별: 남자=0, 여자=1 / 2)쉼터유형: 단기=0, 중장기=1 / 3)가정경제 수준: 중 이상=0, 하=1

모형 2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사회적 배제(전체)를 추가한 모형이다.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26.762$, $p<.001$), 모형은 31.6%($R^2=.31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단계에 비해 27.1%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이다. 성별에서는 여자 청소년일수록($\beta=.155$, $p<.001$), 총 가출기간이 길수록($\beta=.110$, $p<.05$), 사회적 배제(전체)를 경험 할수록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최근 청소년의 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가출 후 경험하게 되는 가출청소년의 생활은 그들의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 성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진 사회적 배제에서 탈피하여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배제를 연구하였으며, 특히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가 처음 시도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인지하는 사회적 배제 수준과 우울·불안의 수준은 우려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사회적 배제는 총 가출기간과 현 쉼터 이용기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가출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가출청소년이 '1개월 미만'이나 '1년 이상' 가출청소년 보다 사회적 배제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현 쉼터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배제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불안은 성별, 연령, 현 쉼터 이용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현 쉼터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우울·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하고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과 전체를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령, 총 가출기간, 사회적 배제의 각 하위영역과 전체는 우울·불안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다. 우선 사회적 배제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 청소년일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 가출기간이 길수록, 경제영역, 사회제도영역, 노동영역에서 사회적 배제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이 높았다. 이처럼 경제, 사회제도, 노동영역의 사회적 배제는 가출청소년들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배제의 영역이자 위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과는 달리 가출 후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가출청소년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배제(전체)에서도 여자 청소년일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 가출기간이 길수록 우울·불안이 높았으며, 사회적 배제(전체)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은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의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다르므로 다행스러운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출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이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점차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의식과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임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가출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배제는 더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우울·불안과 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이 실제 당면하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 복지실천 서비스의 제공 역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전체)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정책의 확충이 시급하다. 청소년들은 비록 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권리는 우선시 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들의 성장과 발전에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가출 후에도 가출청소년들의 주거, 교육, 생활문제 등 기본적인 사회적 배제의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복지제도의 개선은 가출청소년들의 우울·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사회 문제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 중 경제영역, 사회제도영역, 노동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 할수록 우울·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출청소년들은 가족이나 사회의 충분한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기회의

차단은 물론 직업군의 선택도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청소년 시기가 노동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는 발달단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 청소년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의 노동에 대해서는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는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설계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노동영역에서 사회적 배제가 완화된다면 경제영역과 사회제도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역시 완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우울·불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입소청소년들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가출청소년에게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쉼터만족도를 증진시켜 청소년의 현재 자신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가출 청소년의 현 쉼터에서의 이용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그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를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에서의 입소 기간은 가출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쉼터에서의 생활만족도는 더욱 가출청소년들의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가출청소년들의 청소년쉼터에서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과 함께 전문적 개입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일반 청소년은 물론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역시 더더욱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배제의 측정도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 척도를 조사대상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인 사회적 배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개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표집에 대한 어려움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회적 배제를 전형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거리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쉼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가출청소년은 물론 거리의 가출청소년을 비교해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가출 후 청소년쉼터 입소 후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므로 가출 전 과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의 횡단적 자료 뿐 아니라 종단적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육혜련은 대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전대학교 리더십카운슬링센터에서 상담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출청소년, 청소년상담이며, 현재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hryuk76@dju.kr)

참고문헌

- 강신욱,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영(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영배(2009).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 및 정책에 관한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11(4), pp.101-127.
- 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정익중(2012). 가정 외 보호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pp.193-222.
- 강현정(2009). 노년기 사회적 배제. 박사학위논문, 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충남.
- 경찰청(2012). 경찰백서.
- 권신영(2011). 빈곤 여성가구주의 사회적 배제가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임파워먼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경북대학교, 대구.
- 길임주(2008). 미래 직업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의 효율적인 사회화 촉진방안. 한국청소년연구, 19(4), pp.5-31.
- 김광웅(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북한학과, 명지대학교, 서울.
- 김선하, 김춘경(2006).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관련 변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2(3), pp.41-59.
- 김수정(2008).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결식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5, pp.9-38.
- 김안나(2007). 유럽연합(EU) 사회적 배제 개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연구: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5(1), pp.351-379.
- 김연미(2010). 집단미술치료가 소년원재소 비행청소년의 충동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예술치료학과, 원광대학교, 익산.
- 김영란(2006).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천 경기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중앙대학교, 서울.
- 김은이, 오경자(2006). 빈곤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1년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pp.381-396.
- 김정현(2012). 가난한 이혼여성의 사회적 배제.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가톨릭대학교, 서울.

- 김종삼(2008). 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조선대학교, 광주.
- 김준영(2008).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중앙대학교, 서울.
- 김창기, 이진성(201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2), pp.296-307.
- 김태준(2010).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대구대학교, 대구.
- 김향초(2009).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학지사.
- 김현주, 김준영(2008).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수준과 사회적 관계망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5(3), pp.1-27.
- 김현주, 김준영((2010).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개인, 가정, 사회 환경과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7(4), pp.27-46.
- 김형태, 조순실(2009).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6(3), pp.259-286.
- 김형태, 이수천, 전준현, 방미진(2012). 그룹홈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홈 가족 요인. 학교사회복지, 22, pp.1-22.
- 남미애, 육혜련, 오현자, 서보람(2010). 2010년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2012)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내실화 방안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노병일, 손정환(20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1), pp.113-135.
- 노 혁(2009).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청소년복지정책의 방향. 미래청소년학회지, 6(3), pp.23-43.
- 문상식(2013).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사회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익산.
- 문재우(2012).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38(1), pp.19-34.

- 문지윤, 임정하(2011).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정서지능, 사회적 능력, 학교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9(3), pp.79-86.
- 문진영(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3), pp.253-277.
- 박나래, 정익중(2012). 방임, 과보호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7, pp.139-164.
- 박병금(2009). 청소년 우울의 발달경로와 자살생각.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1, pp.207-235.
- 박병현, 최선미(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 빈곤 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 pp.185-219.
- 박현선, 김유경(1997).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2, pp.113-135.
- 박혜진(2011). 빈곤 여성가구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고려대학교, 서울.
- 배지연, 노병일, 곽현근, 유현숙(2006).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33, pp.7-28.
- 백혜정, 방은령(2009). 청소년가출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신명호 외(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신희정(2010). 여성 가구주의 빈곤화 구조에 관한 연구: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한남대학교, 대전.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1). 문항분석을 통한 한국판 CBCL 임상 유용도 검증. *소아청소년정신건강*, 2(1), pp.138-149.
-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pp.53-71.
- 오승환(2006).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적응유연성 요인의 탐색. *한국아동복지학*, 21, pp.182-205.
- 오승환(2010).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2(4), pp.301-324.
- 유현숙, 곽현근(2007). 여성 한부모 가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pp.245-272.
- 윤민재(2013).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21(1), pp.144-185.

- 윤성호(2012). 한국형 사회배제성 척도 개발 연구. *사회보장연구*, 28(1), pp.53-95.
- 이석형(2007).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3(1), pp.55-76.
- 이용교, 남미애(2006).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이정은, 조미형(2009). 사회적 배제 집단의 잠재적 유형 분류 및 성별과 학력에 따른 차이 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pp.79-103.
- 이중섭, 이용교(2009).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7), pp.1-27.
- 이현지(2005). 가출청소년 재가출 방지를 위한 지지체계의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12(4), pp.283-304.
- 이혜은, 최정아(2008).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개인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15(1), pp.197-221.
- 임운식, 최현식(2010). 대인관계성향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2(3), pp.147-170.
- 전병주(2012).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pp.237-247.
- 정경은(2008). *가출청소년의 가출생활 전환과정 연구: 근거이론 접근*.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중앙대학교, 서울.
- 정경은, 김신영(2012). 청소년 가출 원인에 대한 메타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9(3), pp.1-17.
- 정미숙(2007). 저소득 여성가구의 빈곤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4), pp.191-216.
- 조규필(2005).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연세대학교, 서울.
- 조성희, 박소영(2010). 가출경험 청소년의 우울 불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1), pp.290-316.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pp.121-148.
- 최인숙(2012). 성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정서경험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1), pp.135-160.

- 최재성, 강영숙, 김진욱(2009).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사회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pp.309-341.
- 최해경, 김선숙(2009). 가출청소년의 가족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0(2), pp.89-108.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22(2), pp.127-144.
- 한상철(2010). 청소년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의 완충효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7(1), pp.125-149.
- 한상철, 이수연(2003). 가출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행동에 대한 상담학적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pp.152-165.
- 홍봉선, 남미애(2007). *청소년복지론*. 서울: 공동체.
- Achenbach, T. M. (1991). Interactive guide for the 1991 CBCL/4-18. YSR and TRF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ya K., A. (2010). Social Exclusion and Earlier Disadvantages: An Empirical Study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Japan.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3(1), pp.5-30.
- Backman, O., Nilsson, A. (2011). Pathways to Social Exclusion-A Life-Course Stud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1), pp.107-123.
- Burchardt, T., J. Le Grand, D. Piachaud. (2000).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pp.227-244.
- Fitzpatrick, K. M., Piko, B. F., Wright, D. R., LaGory, M. (2005). Depressive symptomatology, exposure to violence, and the role of social capital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2), pp. 262-274.
- Leathers, S. J. 2000.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The Role of Detachment From Caregivers and Community Institu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Doctoral Dissertation.
- Martinez, R. J. (2006). Understanding runaway teen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9(2), pp.77-88.
- Richardson, L., J. Le Grand. (2002). Outsider and Insider Expertise: The Response

of Residents of Deprived Neighbourhoods to an Academic Definition of Social Exclusion.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6(5), pp.496-515.

Room, G. (1995).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UK: Policy and Press.

Whitbeck L., Hoyt, D., Hohanson, K., Chen, X. (2007). Victimaiz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Violence and victims*. 22, pp.721-734.

Wingert, S., Higgitt, N., Ristock, J. (2005). Voices from the Margins: Understanding Street Youth in Winnipeg. *Canadian Journal of Urban Research*, 14(1), pp.54-80.

Research on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Exclusion and the Depression/Anxiety of the Runaway Youths Who Stay(use) in Youth Shelters

Yuk, Hea-Ryeon

(Daeje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exclusion and the psychosocial maladjustment(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runaway youths. In this research, the runaway youths who stayed in the youth shelters for short, middle and long terms were investigated in total 473 persons. From the research results, we found the followings: First, the degree of social exclusion, 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runaway youths was not serious. Second, social exclus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ommunities was more pronounced with the longer period of runaway and the shorter stay in the runaway youth shelters. And the depression and the anxiety of runaway youth were related with the sex, age, and staying period of runaway youth shelters: Female, older age, and shorter staying in the runaway youth shelters had more depression and anxiety. Third, in the various fields of social exclusion such as economy, society, and labor, the depression and anxiety of runaway youths were enhanced by the experiences of social exclusions. Therefore, for the well adjustment of the runaway youths to the society, the social problems would be tackled multi directional. For the prevention of the social exclusion problems, various policies could be developed. Moreover, several tactics and programs have to be developed and applied to youth shelters in order to overcome the depression and the anxiety for the good mental health of the runaway youths. Lastly, the period of stay in the youth shelters affecting social exclusion and mental health for the runaway youths could be studied personally, professionally, and integratedly.

Keywords: Social Exclusion, Depression/anxiety, Runaway Youths, Youth Shelter